

- 제 목 : 제36차 정기이사회
- 일 시 : 2015.02.12(목)19:00
- 장 소 : 황장군 상인점

회 의 록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제36차 이사회 회의록

- 일 시 : 2015. 02. 12(목) 19:00~21:00
- 장 소 : 황장군 상인점
- 회의소집통지일 : 2015. 02. 04(수)
- 참석인원 : 이사 4명, 배석인원 5명
 - 이 사 : 김상근, 김덕진, 박태영, 이기연
 - 배석인원 : 감사 유정철, 원장 박임순, 소장 안대영, 과장 이철선, 담당 김영경

1. 성원보고

- 김영경 담당이 제적이사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상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.

2. 개회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9시 수경복지재단 제36차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3. 대표이사 인사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, 2014년 하반기 시작된 법인 증축공사도 이사님들과 감사님의 관심과 협조덕분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올 2015년도에도 법인의 새로운 사업과 운영에 대한 협조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다.

4. 전차회의록 처리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, 김영경 담당에게 낭독, 보고하게 하다.
- 김영경 담당이 전차회의록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낭독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4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5. 감사보고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2014년 법인 및 산하시설들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유정철 감사에게 보고를 부탁하다.

- 유정철 감사가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보고를 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두 분 감사님들이 수고가 많으셨다고 인사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두 분 감사님은 사회복지분야 회계 및 행정전문가들이시니 중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살펴서 감사를 하셨으리라 믿는다고 말하다.
- 유정철 감사가 감사보고서대로 시설별 적정하게 잘 결산되었다고 말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에 따른 질문이 없는가를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에 대해 의의 없음을 확인하고 보고를 마치다.

6. 부의안 심의

○ 제1호 의안 : 2014년도 사업결산(안)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 심의·의결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2014년도 사업결산 및 세입·세출결산(안)을 상정하고 김영경 담당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 담당이 회의자료를 토대로 법인 및 산하시설들의 사업실적 및 결산(안)에 대하여 설명하다.

2014년도 법인의 세입총액은 378,592,646원이며 세출총액은 353,962,231원으로 잔액 24,630,415원이 이월 되었으며, 비슬노인복지센터의 세입총액은 210,490,333원 중 208,823,085원이 세출되어서 1,670,248원이 이월되었음을 설명하다.

비슬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세입총액은 367,866,408원이며 그 중 364,778,024원 세출되어 3,088,384원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.

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세입총액은 132,183,374원이며 그 중 130,554,511원이 세출되었고 잔액 1,628,863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통장에 예치되어 있음을 설명하다.

이어서 수경기억학교의 세입총액은 231,177,145원으로 세출총액은 229,144,100원으로 2,033,045원의 이월되었음을 설명하다.

- 박태영 이사가 법인의 이월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증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는 법인 자부담으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말하다.
- 이기연 이사가 결산부분은 감사보고를 통해 잘 확인하였으며 검토결과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 졌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○ 제2호 의안 : 2015년 변경사업계획(안)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·의결 건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2015년도 변경사업계획(안)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상정하고 김영경 담당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 담당이 회의자료에 의거 법인 및 산하시설들의 변경사업계획(안)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설명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법인의 세출부분 중 시설비 항목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시설 증축으로 인한 설계 및 감리 부분 자부담분과 또한 소방법 강화로 인한 출입문개폐장치 장비보강 사업의 자부담 부분이 확정되어 증가되었다고 설명하다
- 김덕진 이사가 비슬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세출항목의 부채상환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당부하다.
- 박임순 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다.
- 박태영 이사가 비슬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지난해는 인건비를 예산총액의 75%까지 편성하였고 올해는 보조금의 75%내에서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 따르다보니 감소하였다고 설명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보전하였으면 한다고 말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2015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.
- 이기연 이사가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직원들의 처우와 재가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이에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한 의의여부를 묻고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○ 제3호 의안: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 심의·의결 건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3호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을 상정하고 김영경 담당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 담당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2014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시설별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운영안내가 1월 말 내려오게 되어 제수당 지급기준들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준한 시설별 보수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함을 설명드리다.

- 김덕진 이사가 2015년 운영안내는 2014년 12월에는 내려줘야 그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지침에 따른 운영전반을 계획하는 데 지침이 다소 늦다고 말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그런 것 같다고 말하고 운영규정도 가능하면 관할 관청의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이기연 이사가 이에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한 의의여부를 묻고 의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○ 제4호의안 :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안) 심의·의결 건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4호의안인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안)을 상정하고 박임순 소장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박임순 소장이 시설 운영 중 비슬노인복지센터와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명칭이 비슷하여 이용어르신 및 관련 기관들에 혼란을 주게 되어 명칭변경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드리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명칭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지역명과 법인의 명칭 등을 고려하여 고민 하였으나,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또한 법인 내 시설들 간의 혼란이 있을 듯하여 아예 전혀 다른 명칭을 사용함이 어떨까하여 ‘단비노인복지센터’로 직원들과의 의논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다.
- 박태영 이사가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은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느냐고 묻다.
- 박임순 소장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 승인 후 사업자 명칭변경 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 드리다.
- 박태영 이사가 명칭 변경 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다.
- 이기연 이사도 어르신들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여부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하다.

○ 기타의안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다른 사항이 없는지 묻고 기타의안이 없음을 확인하다

7. 폐회

- 박태영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, 이기연 이사가 재청하다.
- 참석이사 4명 전원 찬성으로 김상근 대표이사가 21:0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이상과 같이 제36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15. 02. 12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대표이사 김상근



이 사 김덕진



이 사 박태영



이 사 이기연

